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Prim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Content to Cultivate Professional Workers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Sexual Violence Survivors

송인한\*, 김지은\*, 신수민\*, 이상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보건복지연구실\*, 차의과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In Han Song(isong@yonsei.ac.kr)\*, Ji Eun Kim(junekim119@gmail.com)\*,  
Soo Min Shin(yonseism@gmail.com)\*, Sang Hyuk Lee(drshlee27@gmail.com)\*\*

### 요약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2)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 내용의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3)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국의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 성폭력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 주제와 방법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내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다학제적 접근의 훈련 및 기본교육의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상담기술과 피해자 심리이해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의 피해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성폭력 | 피해자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교육 콘텐츠 개발 |

### Abstract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survivor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content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workers to support victim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1)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existing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produce workers to support sexual violence victims; (2) to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9 workers regarding their training needs; (3) to conduct a national-wide survey with 800 workers; and (4) to carry out a delphi study with 20 sexual violence professionals in regard to the topics and methods of training. According to the survey of practice workers, the areas of greatest need include the understanding of client characteristics,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in training, and strengthening of basic training. The delphi study of professionals revealed the need for counseling skills,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sexual violence victims, and skills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for victi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s training content designed to provide support services customized to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urvivors.

■ keyword : | Sexual Violence | Survivor Support | Professional Training |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과제번호: HM14C2595),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사업(연세대학교, 신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창의 융합 사회복지 인재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7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11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11일

교신저자 : 이상혁, e-mail : drshlee27@gmail.com

## I. 서론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최근의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1][2]. 대검찰청(2015)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인구 10만명당 58.2건(총 29,863건)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5년 인구 10만명당 23.7건(총 11,551건)에서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3]. 이미 1980년대의 문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성폭력에 대해 기술한 바 있는데[4], 1975년 2,794건의 성폭력이 집계된 기록과 비교한다면, 40년이 지난 현재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일 만큼, 우리사회의 성범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발생의 양적 증가와 성범죄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5]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자수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나타나 따라 피해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1990년대 민간영역에서 성폭력상담소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윈스톱지원형 시설인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어 왔으나[6],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 부족, 성폭력 지원 인프라의 양적 및 질적 한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는 등[7][8],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양성교육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정 외(2011)는 성폭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양성기관들의 교육내용과 과정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의 실무자가 교육욕구를 가지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요구상황에 대해서는, 2006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국 성폭력 시설 및 교육훈련기관의 상담원 대상으로 70명의 응답자를 조사한 것이 대표적일 만큼 최근의 현황과 욕구를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병원경영 전문가[10], 건강가정사[11], 미디어 교육 전문가[12] 등 여러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추세와 마찬가지로,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보수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13], 종사자의 교육욕구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폭력 분야 전문가 의견 및 종사자의 교육욕구를 반영하여, 성폭력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에 대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2.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중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양성 교육에 대해 심층조사한다.
3.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전수를 대상으로 양적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콘텐츠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
4. 성폭력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II. 배경 및 현황

### 1.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인력 현황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위기개입 지원체제로 구분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성폭력상담소는 161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0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은 16개로 파악되었다 [14].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의료, 수사지원을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해바라기센터<sup>1)</sup>는 2015년 기준, 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14].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인력은 2010년 기준으로 약 820명으로 추정되는데[9], 성폭력상담소 454명, 성폭력 보호시설 90명, 여성긴급전화(1366) 146명, 통합상담소 130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의료 및 법률전문가, 간호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상담사(사회복지사 등),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등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성폭력피해자 지원 인력 선행연구

성폭력 지원시설 인력과 관련하여 재직기간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재직 기간이 점차 단축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9]. 2010년, 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 헛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하가 23.2%, 3년 이하는 39.4%, 5년 이하가 24.2%, 5년 초과 근무는 13.1%로 나타났다[15]. 2007년에는 1년 이하가 15%였으나, 2010년 23.2%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5년 초과 근무자는 20.8%에서 13.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정폭력 지원시설의 경우, 2010년 5년 초과 종사자는 23.2%로 파악되어 성폭력 지원시설의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 및 퇴직을 예상해볼 수 있다[9].

1)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의료진, 상담사,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이 365일 24시간 종합서비스 제공한다. 과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로 명칭을 구분하였으나 '해바라기센터'로 통합하였다. 별도로 (아동)이 덧붙여진 '해바라기센터(아동)'은 전국에 8개소가 존재하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외상치료, 사건 면담, 심리평가 및 치료, 법률적인 지원, 지지체계로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외 다수의 연구에서 성폭력 지원시설 인력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급여 인상이나 소진 및 이차적 외상 등으로부터 정신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직원 복지 증진 뿐 아니라, 종사자의 3분의 1이상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15].

## 3. 성폭력피해자 지원 인력 교육프로그램 현황

2011년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19조), 보수교육의 실시(제20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전국 48개의 기관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표 1]과 같은 교육 과목을 이수하면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이 부여된다.

지원 인력이 갖추고 있는 자격 조건이나 이수한 교육 내용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의 성격도 달라진다. 크게 **공공 영역**의 성격을 띠는 해바라기센터와 **민간 영역**의 성폭력상담소로 구분하면, 지원 인력이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아동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하여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으로 수습직원<sup>2)</sup>도 채용 가능). 또한 2016년부터

2)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상담 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된 내용으로, 아동형과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에서만 채용하는 동행상담원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의 기준을 두고 있다.

표 1.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 여성인권과 폭력 ·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15
전문분야 I	· 성폭력의 이해 ·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II	· 상담심리개론 · 상담 원리와 기법 ·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와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 상담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 연습 등	20
총계		100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도 다소 달라진다. 이에 대한 자격 및 이수하는 교육은 [표 2]를 참고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바라기센터의 종사자와 성폭력 전문 상담원의 기본(입문)교육, 보수교육 및 심화교육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sup>3)</sup>(이하 중앙지원단)에서 직군별 혹은 다양한 내용과 구성으로 시행되고 있다.

3)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으로, 전국의 해바라기센터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홍보, 연구 사업과 함께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표 2. 성폭력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내용

구분	자격기준	이후교육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있는 사람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해바라기 센터	전문 상담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 지원단입문 /보수 교육 및 직군별 교육
	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 학위 취득 후 병원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	
	심리 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학, 아동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1.

#### 4. 성폭력피해자 지원 인력 교육프로그램 선행연구

성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상담지원자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16], 심화교육의 전문화·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담지원자 소진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성주의 상담의 경우, 수퍼비전이 필요하고, 성폭력 피해로부터 효과적인 치유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제안하였다[9]. 구체적인 주제로는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치료 관련 지식, 여성 및 인권 인식, 자활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유관 기관이나 프로그램 연계 관련 지식 및 기술, 집단심리 상담기술, 의사소통 훈련, 의료 지식, 법률 등이 있었다. 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지원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국 기관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17]. 장애인, 정신질환자, 지적장애 피해자, 복합적 폭력 피해자, 경제적으로 극빈한 피해자, 아동, 청소년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2012년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보는 센터들이 지정되었기 에,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Study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는 2015년 1~2월 온라인 상에 등록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주체에 따라, 중앙지원단이 제공하는 공공분야 교육프로그램과 전국 성폭력상담소가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공공분야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교육프로그램 총 94건에 대하여, 중앙지원단 교육담당자가 내용보완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1건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단위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하였다.

민간분야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2015년 1월 기준) 총 70개 중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 1월

이전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8건의 교육프로그램이 조사되었으며, 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총 24건의 교육프로그램을 최종 분석하였다. 공공분야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의 개수가 적어서, 분석 단위는 교육프로그램 내 명시된 교육주제로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에서는 각 세부 교육 콘텐츠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내용분석의 과정을 통해, 기존 교육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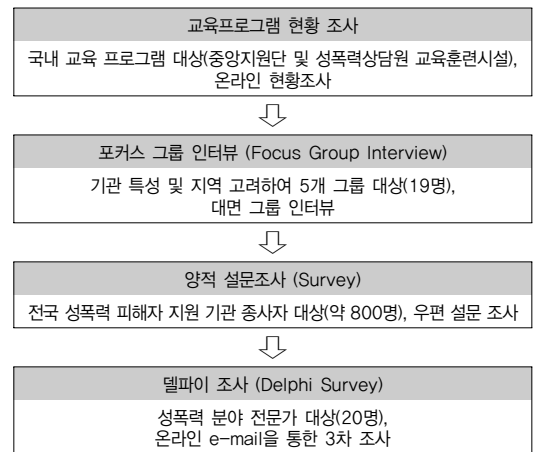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과정의 흐름

**Study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2015년 1~2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19명을 5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각 1회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200개 기관(해바라기센터 34개, 성폭력상담소 등 166개) 중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52개 기관에 연구 참여 안내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종사자는 19명으로, 소속기관은 해바라기센터 4개소와 성폭력상담소 4개소였으며, 지역은 서울, 수원, 청주, 대구, 제주 지역 등 다양하였다. 총 5회의 FGI는 책임연구원급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의 진행 하에 반구조화된 연구질문 “성폭력분야 종사자들은 피해자의 치료회복지원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가”를 사용하여, 각 약 1시간 30분가량 진

행하였다. FGI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거쳐 녹취하여 전사하였으며, Grounded theory를 기반으로 Atlas ti.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질적 분석하였다.

**Study 3. 양적 설문 조사**는 2015년 5월~6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48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과정은 전국 총 200개의 기관(해바라기센터 34개, 성폭력상담소 등 166개)에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연구 참여를 안내한 후, 연구에 관심을 보인 163개 기관의 약 800명의 종사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0개 기관으로부터 48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응답 내용이 미흡한 2부를 제외하고 482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지는 FGI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 관련 특성,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주제는 1. '대상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2. '공통 기본교육 및 다학제간 팀접근'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교육주제별로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와 2순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는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항목별로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평균비교, 빈도분석 등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 SPSS 21을 사용하였다.

**Study 4. 델파이 조사**는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걸쳐,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여 신속한 조사내용의 전달과 의사소통을 위해 이메일(e-mail)로 전송·회수되었다. 총 3차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최종 12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여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주제와 방법에 대해 1차 개방형 질문, 2차 5점 척도 질문, 3차 우선순위 다중응답 표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중앙지원단이 시행하는 공공분야의 교육프로그램과 전국 성폭력상담소가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1 중앙지원단의 공공분야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한 총 81건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68건, 84%),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 기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13건(16%)으로 적었다. 또한, 교육인원이 초과될 경우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에 참가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 외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중앙지원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입문교육, 보수교육, 소진예방교육,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표 3]. 입문교육은 해바라기센터 및 기타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근무 1년 미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 중앙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현황

분류	교육 콘텐츠	빈도 <sup>1</sup>	% <sup>2</sup>	
입문교육	성폭력 전반 이해(성/가정폭력, 학대 등) 피해자 지원정책, 성폭력 관련 법 종사자윤리, 통합사례관리 직군별* 교육(서비스지원 매뉴얼 이해) 행정(상담지 기록 및 표준행정시스템) 법원 참관	6	7.4	
보수교육	일반	성폭력 관련 법, 피해자 지원제도 팀접근(사례관리, 매뉴얼 활용) 정신병리의 이해, 업무 문서작성 및 관리	12	14.8
	행정	표준행정시스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회계	2	2.5
직군별*	의료(간호) : 증거를 채취, 관련 약물, 법 최면, 진술 진위 감정 등 심리 : EMDR (교육비 지원) 수사(경찰) : 진술교육 등 상담 : 이음부모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행정 : 연말정산, 인사노무관리	9	11.1	
특수성	장애 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매뉴얼 개관, 장애유형별 지원 등) 지적장애 청소년피해자 치료프로그램	5	6.2	

사례수 퍼비전	직군별* 및 지역별** 내담자 사례 : 청소년,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데이트 강간, 피해자녀 보호자, 정신장애 내담자 등 기타 : 사회적 연계서비스	22	27.2
전문	NEO 성격검사 상담사 기초과정 의료지원강화 피해자 지원기법(해의 전문가 초청) 동행서비스 전담인력 교육 아동학대 공동업무 수행지침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7	8.6
견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2	2.5
소계		59	72.8
소진예방 교육	소진예방특강, 음악치료/자연치유프로그램, 관 광지 관람 등	4	4.9
기타	직군별* 간담회 및 워크샵 회의 등	12	14.8
계		81	100

\* 직군별 : 해바라기센터 내 상담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간호), 수사지원(경찰), 행정지원 등 직군별 실시  
\*\* 지역별 : 서울·인천·경기·제주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전국권 등 지역별 실시  
+ 빈도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수; \* %는 전체 교육프로그램 81건 중,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비율.

보수교육은 일반(법, 지원제도, 팀접근, 정신병리, 문서작성 등), 행정, 직군별(상담, 심리, 의료(간호), 수사(경찰), 행정), 내담자 특수성 이해(장애인, 지적 장애청소년), 사례 수퍼비전(직군 및 지역별, 내담자 사례 등), 전문교육(전문기법 및 기술 등), 견학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다. 소진예방교육은 소진 예방특강 및 관람 등, 기타는 직군별 간담회 및 워크샵 등으로 입문교육과 보수교육에 비해 다소 유연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 1.2 민간분야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전국의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육내용의 경우 공통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상담, 여성주의, 법, 의학, 실습 및 사례연구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표 4.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현황

영역	내용	빈도	%
상담	상담이론, 대상별 상담과정,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집단상담, 여성주의 상담, 가해자 상담, 피해자 공감하기, 상담을 위한 역량 강화, 가족상담, MBTI 이해 및 적용 등	18	75.0

여성주의	여성인권, 여성학, 섹슈얼리티, 성인식 관점 바로잡기,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한국사회의 성문화, 성의 역사, 상담자 의 성 인식 등	14	58.3
성폭력 이해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접근, 아동 성폭력, 장애여성 성폭력 등	12	50.0
법제 및 정책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 여성 폭력사건 법 해석 및 대응, 법적 절차 및 대응 방 식, 여성 복지 정책, 등	10	41.7
실습	유형별 상담 실습, 상담자 자신 돌아보 기, 관련 센터 방문 등	8	33.3
사례연구	집중 사례 연구, 여성주의 상담 사례 연구, 이주 여성 성폭력 사례 연구 등	7	29.2
행정 및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 체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	6	25.0
의료	정신건강 상담, 성폭력 산부인과적 대 응방법	2	8.3
계		77	-

+ 빈도는 교육프로그램 내 해당 교육주제의 개수; \* %는 전체 교육프로그램의 24건 중, 해당 교육주제의 비율.

48개의 기관 가운데, 교육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24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 75.0%, 여성주의 58.3%, 성폭력 이해 50.0%, 법제 및 정책 41.7%, 실습 33.3%, 사례연구 29.2%, 행정 및 지원체계 25.0%, 의료 8.3%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시간이 명시된 기관을 기준으로 교육의 평균시간은 약 95시간이었으며, 특별히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기간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달까지 각 기관마다 다양하였다.

###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연구참여자는 총 19명으로, 공공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소속 종사자가 8명(42%), 민간기관인 성폭력상담소 소속 종사자가 11명(58%)으로 민간기관 소속의 참여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참여자들의 직책으로는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 관리자급이 5명(26%), 실무자급 14명(74%)으로 참여자의 대부분이 상담가, 심리사, 간호사 등 실무자들이었다. 업무내용으로는 상담지원 15명(79%), 심리지원 2명(10.5%), 의료지원 2명(10.5%)으로 상담 업무를 하는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질적 분석 결과, 개방코딩은 총 218개였으며,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어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표 5]와 같이 최종적으로 2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조사자들이 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크게, ‘내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공통 기본교육 및 다학제적 팀접근’으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1) ‘내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1) 아동, 청소년, 성인여성, 장애인(발달장애) 등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2)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가해자 등 ‘피해자와 관계된 내담자를 이해’를 포함하였다. 2) ‘공통기본교육 및 다학제적 팀접근’은 (1) 피해자 중심의 인권 및 여성주의에 대한 공통가치, (2) 정신의학, 법률, 지역사회자원 등에 대한 공통지식, (3) 면담기술과 같은 공통기술, (4) 생물심리사회적 관점 및 팀내 의사소통방법 등 다학제적 방법론, (5) 간호, 사회복지, 심리 등 다양한 타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6) 해바라기센터(공공) 및 성폭력상담소(민간) 등 타기관에 대한 이해, (7) 간호, 임상심리, 상담 등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 (8) 전문성 향상 및 동료간 교류, 스트레스관리 등을 통한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소진예방 등을 포함하였다.

표 5. FGI를 통해 도출된 필요 교육주제

범주	하위범주	내용
내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특수성 이해	피해자 : 아동, 청소년, 성인 여성, 남성 피해자, 어르신, 장애인(발달장애),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등
	피해자와 관계된 내담자이해	피해자의 가족 및 보호자 가해자 (친족, 타인)
공통 기본교육 및 다학제적 팀접근	공통가치	피해자 중심의 가치관 : 인권, 여성주의
	공통지식	정신의학, 법률, 지역사회자원
	공통기술	면담기술
	다학제적 방법론	다학제적 방법론 : 생물심리사회적 관점, 팀 내 의사소통방법
타분야에 대한 이해	타분야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 간호, 사회복지 심리 등 타 전공 이해
	타기관에 대한 이해	기관별 특성에 대한 이해 : 해바라기센터(공공), 성폭력상담소(민간) 등
각 분야별 전문성강화	간호	법의간호, 정신간호
	임상심리	성폭력 피해자의 PTSD, 심리도구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소진예방	상담	상담기법, 치료기법, 지역사회자원연계
	기타 분야	경찰, 변호사, 치료사, 의사 등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소진예방	전문성 향상(성공적인 사례경험), 동료들과의 교류, 스트레스관리, 자아성찰 등	

### 3. 양적 설문조사

양적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482명 중 거의 대부분이 여성 472명(97.9%)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0.6세(SD: 9.0)로, 30대(173명, 36.0%)와 40대(169명, 35.2%)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340명, 70.8%), 종교는 있는 경우(327명, 68.1%)가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235명, 48.8%)과 대학원 석사 졸업(171명, 35.5%)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최종전공은 사회복지학(196명, 40.7%)이 가장 많았으며, 심리학(45명, 9.5%), 상담학(46명, 9.3%), 간호학(43명, 8.9%)이 각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6. 양적 설문조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482)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472	97.9
	남성	10	2.1
연령대	20대	53	11.0
	30대	173	36.0
	40대	169	35.2
	50대	74	15.4
	60대	11	2.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0	70.8
	배우자 없음	140	29.2
종교	있음	327	68.1
	없음	153	31.9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54	11.2
	대학교 졸업	235	48.8
	대학원 석사 졸업	171	35.5
	대학원 박사 졸업	13	2.7
기관분류	기타	9	1.9
	공공기관 (해바라기센터)	291	60.4
직책	민간기관 (성폭력상담소)	191	39.6
	기관장 및 최고관리자(소장)	55	11.4
중간관리자(부소장, 팀장급)	중간관리자(부소장, 팀장급)	70	14.5
	실무자(상담사, 심리사, 간호사 등)	335	69.5
	주요업무	상담지원	302
현 기관 근무경력	수사지원	52	10.8
	의료지원	50	10.4
	심리지원	37	7.7
	기타	40	8.3
1년 미만	1년 미만	112	23.5
	1~3년 미만	161	33.8
	3~5년 미만	81	17.0
	5년 이상	122	25.6



그 외에도 교육학(25명, 5.2%), 법학(16명, 3.3%), 아동가족학(11명, 2.3%), 경찰학(11명, 2.3%), 의학(1명, 0.2%)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업무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가 속한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인 해바라기센터(291명, 60.4%)가 민간기관인 성폭력 상담소(191명, 39.4%) 보다 다소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직책으로는 상담사, 심리사, 간호사 등 담당 실무자(325명, 69.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부소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70명, 14.5%), 기관장과 같은 최고관리자(55명, 11.4%)도 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업무는 상담지원(302명, 62.8%)이 대부분이며, 수사지원(52명, 10.8%), 의료지원(50명, 10.4%), 심리지원(37명, 7.7%)이 약 10% 내외로 나타났다. 주요업무의 기타 응답(40명, 8.3%)으로는 교육 및 연구, 법률, 사회복지지원 등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현재 소속기관 경력은 평균 3.6년(SD: 3.7)이었으며, 4명 중 1명은 1년 미만 경력자(112명, 23.5%)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반수이상(262명, 54%)은 현재 소속기관 이전에 평균 5.5년(SD: 4.3)의 관련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각 주제에 대해 2번의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빈도가 높을수록 교육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교육주제 I. '대상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교육의 욕구는 아동 피해자(n=222, 22.6%),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n=217, 22.1%), 친족 성폭력 피해자(n=186, 18.9%), 청소년 피해자(n=131, 1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n=64, 6.5%), 성인 여성 피해자 (n=58, 5.9%)에 대해서도 교육의 욕구가 나타났다. 교육주제 II. '공통 기본교육 및 다학제간 팀접근'에서 교육의 욕구는 의료, 간호, 심리, 상담, 수사, 법률 지원 등 각 직종(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n=239, 24.6%). 다음으로는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소진예방(n=148, 15.2%), 면담기술(n=124, 12.8%), 인권 및 내담자 중심 등에 대한 소양교육(n=119, 12.3%)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주의 상담

(n=75, 7.7%), 기관 내 상담, 의료, 심리, 수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역할을 알 수 있는 타 분야에 대한 이해(n=71, 7.3%) 또한 교육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양적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필요 교육주제 우선순위

교육주제	순위	항목	빈도 <sup>+</sup>	% <sup>*</sup>
I. 대상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아동 피해자	222	22.6
	2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 등)를 가진 피해자	217	22.1
	3	친족 성폭력 피해자	186	18.9
	4	청소년 피해자	131	13.3
	5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64	6.5
	6	성인 여성 피해자	58	5.9
II. 공통 기본교육 및 다학제간 접근	1	직종(분야)별 전문성 강화: 의료, 간호, 심리,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 분야별 전문 교육 (예: 법의간호/정신간호/상담기법 등)	239	24.6
	2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소진예방	148	15.2
	3	면담기술	124	12.8
	4	소양교육: 인권, 내담자 중심 등	119	12.3
	5	여성주의 상담	75	7.7
	6	타 분야에 대한 이해 - 기관 내: 상담, 의료, 심리, 수사, 법률 등 각 분야의 기본지식 및 역할	71	7.3

<sup>+</sup> 빈도는 교육주제별 2번의 중복응답을 허용한 값; <sup>\*</sup> %는 전체 연구 참여자 482명 중, 해당 항목에 응답한 비율.

#### 4. 델파이 조사

성폭력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공공·민간/지역/현장·교육·연구 등 고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3차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12명의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주제에 있어서는 [표 8]과 같이, 면접 및 상담기술,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정서적 지원, 성폭력 전반에 대한 이해 등의 순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표 8.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응답 내용	1차 조사 빈도 (%)	2차 조사		3차 조사 선택 개수
		사용도 평균 (S.D)	중요도 평균 (S.D)	
① 면접 및 상담기술	13 (16.3%)	4.77 (0.44)	4.69 (0.48)	10
② 피해자의 심리 이해 및 정서적 지원	12 (15.0%)	4.85 (0.38)	4.85 (0.38)	10
③ 성폭력 전반에 대한 이해	5 (6.3%)	4.31 (0.85)	4.31 (0.95)	9
④ 지역사회자원 및 지지 체계 연계	7 (8.8%)	3.92 (0.76)	4.46 (0.88)	7
⑤ 정신의학 및 의학지식	8 (10.0%)	3.77 (0.60)	4.00 (0.71)	6
⑥ 성폭력 관련 법률	8 (10.0%)	4.00 (1.08)	4.23 (0.73)	6
⑦ 피해자 중심의 사례 연구	4 (5.0%)	4.00 (0.91)	4.31 (0.75)	6
⑧ 종사자의 정신건강	5 (6.3%)	3.54 (1.27)	4.23 (1.17)	3
⑨ 여성주의적 관점	7 (8.8%)	3.31 (1.49)	3.77 (1.24)	2
⑩ 심리검사 도구 및 치료 기법	11 (13.8%)	3.77 (0.93)	3.69 (1.18)	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 연구로서, 1) 기존에 진행되어 온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2) 전국의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종사자의 교육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3) 전국의 성폭력 지원기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적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 공공과 민간영역의 성폭력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각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 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에서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성격, 즉 공공분야의 해바라기센터와 민간분야의 성폭력 상담소 등에 따라 교육제공의 주체와 시기, 콘텐츠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공공분야의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은 센터에 입사 한 이후, 중앙지원단을

통해 입문교육, 보수교육(일반, 행정, 직군별 교육, 사례수퍼비전, 견학 등), 소진예방교육 등의 교육 기회가 종사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반면, 민간분야 성폭력 상담소의 종사자들은 중앙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신청 시, 교육대상자 제한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민간분야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상담, 여성주의, 성폭력의 이해, 법제 및 정책, 실습 등 포괄적인 교육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나, 각각의 기관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받고 기관에 소속된 이후 제공되는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공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음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전체에 대한 형평하고 포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앙지원단은 직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최신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며, 권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사례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등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적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소 실무중심의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 및 가치에 대한 콘텐츠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중앙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완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FGI를 통해 도출된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과 더불어, 보호자 및 가해자 등 피해자와 관련된 내담자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희망하였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가치와 기본적인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높이는 동시에, 타분야에 대한 이해와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기관과 전공분야의 종사자들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학제적 팀접근에 관한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단계인 양적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공분야의 해바라기센터와 민간분

야의 성폭력 상담소 등 전체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800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종적으로 482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들은 ‘대상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교육주제로 피해자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성인여성 보다도, 아동, 장애인, 친족피해자,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FG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나 특수한 내담자들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성인 여성 외에도, 늘어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등에 대한 특화된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보고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7][18].

양적 설문조사의 ‘공통 기본교육 및 다학제간 접근’ 교육주제에 대해서는 의료, 심리, 상담, 수사 등 직종이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의 정신건강, 면담기술 및 소양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성 교육과 종사자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은 이미 중앙지원단에서 기존에 시행 중이므로 중복하여 개발할 시급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그 다음 순위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면담기술과 소양교육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델파이조사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종사자의 면담기술 및 상담기술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단순히 면담에 관련된 기법이 아니라 다양한 피해자들이 각각 겪게 되는 성폭력의 피해와 특성,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영향 등을 심도 깊게 이해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면담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발달단계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과정에 따른 특수한 과업 및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간호 지원, 수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피해자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이나 욕구, 대응방식, 필요로 하는 자원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19],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내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콘

텐츠 개발은 종사자의 지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가 온라인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진행됨에 따라, 실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실제 제공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에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교육프로그램 범주의 차원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제공하는 각각 다른 형태의 정보를 이차적으로 분석함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양적 서베이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콘텐츠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깊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전국 규모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기관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천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양적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은 향후 유사분야의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의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발달단계에 따른 집단의 피해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발달단계의 특성을 가진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전반적인 면담기술 및 전문가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종사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배미란,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주로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pp.361-382, 2016.

[2] 김현동, 조현빈,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715-723, 2013.

[3]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2\\_2015.jsp](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2_2015.jsp)

[4] 최영애,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미상, 1997.

[5] 박성미, 이효영, 임혁, 채은희, 김혜숙, "정신건강 예방관리 전문직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 의료산업학회지, 제6권, 제2호, pp.219-234, 2012.

[6] 강은영, 채종민, 홍혜숙, 201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김승권, 이현혜, 김정숙, 박주영, 김정인, 김보경, 장혜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여성가족부, 2013.

[8] 전중철, 심혜선, 신선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3호, pp.505-537, 2015.

[9] 이미정, 윤덕경, 변화순,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0] 이정우, 김영배, 박원필, "병원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 탐색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pp.699-709, 2009.

[11] 이윤정, "상담영역 건강가정사의 직무 및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역량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58-368, 2011.

[12] 이성균, 윤영두,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 온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468-476, 2010.

[13] 이윤정, "문화사업 담당 건강가정사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직무와 역량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485-496, 2011.

[14]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1\\_02\\_02.jsp](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1_02_02.jsp)

[15] 김재엽 외,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16] 변혜정, 조중신, 김지혜, 권수현, 정유석, 김혜정, 현혜순, 정희진, 정유희, 김애라, 권정혜, 박소라,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여성가족부, 2005.

[17] 이미정, 황정임, 김동식, 이인선, 이호택, 박선주, *2012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평가*,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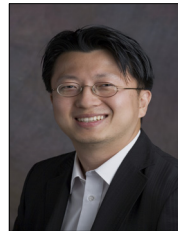
[18] 김영택, 김동식, 김인순, 차지영,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9] 이미정, 이인선, 김기현,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저자 소개

송인한(In Han Song)

정회원



- 2007년 8월 : 미국 시카고대학교 박사(사회복지행정학)
- 2009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사회복지학과장

<관심분야> : 정신보건, 보건복지, 여성건강/정신건강, 자살예방, 건강불평등, 학제간 융합연구방법론

김지은(Ji Eun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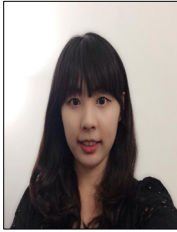


- 201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자살예방, 여성건강/정신건강, 보건의료 사회복지, 중앙사회복지, 융합연구방법론

신 수 민(Soo Min Shin)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여성 및 노인 건강/정신건강, 디지털 사회관계망, 건강불평등, 정신보건, 보건 및 의료복지

이 상 혁(Sang Hyuk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의학박사(생물정신의학)
- 2003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생물정신의학, 인지행동치료, 뇌영상, 공황장애, 조현병